

250억弗에의 挑戰

王 守 乾

〈貿易會報取材1部長〉

輸出의 意味

올해부터 시작된 제 5 차經濟社會發展 5 個年計劃期間중 정부는 經常收支赤字를 208 億弗로 보고 여기에 外債元利金償還 159 億弗, 延拂輸出 58 億 1 千 萬弗, 外換保有額增加 40 億弗 등을 합쳐 總外資所要를 465 億弗로 추정하고 있다.

外資所要額을 年度別로 보면 82 年 81 億 3 千 萬弗, 83 年 84 億 5,500 萬弗, 84 年 93 億 3,500 萬弗, 85 年 98 億 9 千 萬弗, 86 年 107 億弗이다.

정부는 이 外資所要額을 借款 229 億弗, 뱅크론 104 億 1,500 萬弗, 外貨債權 16 億 7 千 萬弗 등으로 充當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늘어나는 이 外資所要를 메꾸기 위해 合理的인 經濟運用으로 對外信認度を 提高시키고 國際金融市場에서의 對外交渉能力을 배양시키는 한편 條件이 나쁜 短期借款은 最大限으로 抑制하고 IBRD 등 國際金融機關으로부터 장기저리의 公共性 借款을 적극 導入할 계획이다.

이 計劃期間중 外資所要의 借款 229 億弗은 總外資所要額의 49.2%에 해당, 우리는 아직도 所 要外資의 50%를 借款으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經濟開發計劃을 추진할때부터 생겨난 問題이지만 우리 經濟의 外債負擔은 해마다 加重되어 왔다.

지난 81 年 말 우리의 外債는 中長期 210 億

弗, 短期 90 億弗, 外換用計定 30 億弗 등 총 330 億弗로서 GNP에 대한 外債比率이 72 年 34.6%, 75 年 41.8%에서 54%로 높아졌으며 오는 86 년도 外債부담은 약 640 億弗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도 外債元利金償還額은 元金 18 億 2,600 萬弗, 利子 17 億 6,100 萬弗, 총 35 億 8,700 萬弗로서 元利金償還負擔率이 13%에 달했다.

이 外債元利金償還負擔率은 오는 86 년에는 11%로 낮아질 전망이지만 올해도 우리는 元利金을 41 億 3,900 萬弗, 83 年 48 億 1,600 萬弗, 84 年 60 億 300 萬弗, 85 年 68 億 4,300 萬弗, 86 년도 75 億 7,300 萬弗를 갚아야 한다.

이중에 利子부담이 올해 20 億 1,900 萬弗, 83 年 22 億 1,100 萬弗, 84 年 26 億 6,800 萬弗, 85 年 30 億 5,300 萬弗, 86 年 34 億 2,300 萬弗이 된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輸出의 重要性을 찾아 볼 수 있다.

賦存資源이 빈곤, 國內市場의 制約을 극복하면서 지속적인 經濟成長을 달성하기 위해 貿易의 擴大均衡이 추구돼 왔고 여기서 우리는 또 輸出主導型經濟成長을 지속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필연적으로 많은 外資가 소요된 것이다.

經濟開發에 필요한 外資를 우리가 벌어들인 外貨로 모두 充當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輸出의 重要性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國際收支도 그렇다. 經常收支赤字가 지난 78 년에 10 億 8,520 萬弗에 불과했으나 79 년에는

外資所要와 調達

<表-1>

(經常價格 = 100 만弗)

| | | 1980 | 1986 | 1982 - 1986 | |
|----------|---------|-------|--------|-------------|-------|
| | | | | 金 額 | 構 成 比 |
| 外資所要 | 經常赤字 | 5,321 | 3,600 | 20,800 | 44.7 |
| | 元金償還 | 1,568 | 4,150 | 15,900 | 34.2 |
| | 延拂輸出(純) | 243 | 1,750 | 5,810 | 12.5 |
| | 外換保有額增 | 863 | 1,200 | 4,000 | 8.6 |
| 合 計 | | 7,995 | 10,700 | 46,510 | 100.0 |
| 外資調達 | 借 款 1) | 3,432 | 7,800 | 33,315 | 71.6 |
| | 外貨債權 | 46 | 500 | 1,670 | 3.7 |
| | 其 他 | 4,517 | 2,400 | 11,515 | 24.7 |
| 元利金償還負擔率 | | 13.2 | 11.1 | - | - |

註: 1)뱅크론 포함.

41억 5,110 만弗, 80년 53억 2,070 만弗, 그리고 작년에는 47억 4천만弗이었다.

貿易收支赤字는 78년 17억 8천만弗, 79년 43억 9,550 만弗, 80년 43억 8,410 만弗, 작년도에 32억 5,440 만弗였으며 貿易外收支는 78년 2억 2,400 만弗의 흑자였으나 79년부터는 적자로 反轉, 이해 1억 9,460 만弗, 80년 13억 8,590 만弗, 작년에 19억 9,810 만弗의 적자를 기록했다. 결국 우리는 能動的인 輸出增大로서 이와 같은 赤字收支도 방어해야 된다는 짐을 지고 있다.

또 한편 우리가 經濟開發計劃을 추진해 오면서 輸出主導型이 아니될 수 없었던 이유는 輸出에 의한 生産(所得) 誘發效果, 고용효과가 크며 經濟成長에 있어 輸出기여도가 엄청나다는데 있다.

지난 62년 6%에 지나지 않았던 輸出에 의한 生産誘發效果는 80년에 이르러 31%에 달했으며 輸出分野의 就業人員은 125 만명으로 全體製造業就業人員의 44%를 차지했다.

지난 75년 379명에 달했던 輸出 100만弗當 就業人員이 裝備率提高로 79년 128명, 80년 119명으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輸出이 고용유발에 이바지하는 기여도는 至大하기 이를데 없다.

70년에서 79년까지 平均經濟成長率 8.9%

중 輸出에 의한 成長率이 53%인 4.7%에 달했으며 지난 80년에는 마이너스 5.7%의 經濟成長을 했지만 輸出에 의한 成長은 2%였다.

올 輸出目標 250억弗

오는 86년도 530억弗 輸出目標達成을 위해 정부는 比較優位가 있는 産業을 中心으로 輸出構造를 高度化시키고 製品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延拂輸出擴大에 따른 支援體制를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정부방침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一般機械, 船舶, 電子, 電氣機器 등 앞으로 비교우위에 설 수 있다고 판단되는 産業의 設備投資를 擴充하고 특히 部品輸出의 擴大에 注力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機械部品輸出基盤의 구축을 위해 合作投資, 技術導入을 적극화하고 外國有名會社와 제휴, 製造用部品輸出을 擴大하며 完製品輸入購買와 部品輸出販賣의 연계노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다.

纖維 등 경쟁력있는 輕工業製品은 品質高級化와 製品의 高附加價值化를 통한 外貨稼得率의 提高에 注力하여 輸出産業으로 계속 育成하고 이를 위해 少數品目の 大量生産體制에서 少量이라도 專門化된 多品目を 개발, 生産하는 體制

86년도 輸出計劃

(經常價格 = 100 만弗)

<表-2>

| | 1980 | | 1986 | | 1982 - 1986 平均增加率 |
|---------|--------|-------|--------|-------|----------------------|
| | 金額 | % | 金額 | % | |
| 合計 | 17,505 | 100.0 | 53,000 | 100.3 | 20.3 |
| 一次産業 | 1,586 | 9.1 | 2,910 | 5.5 | 10.2 |
| 輕工業製品 | 8,340 | 47.6 | 20,920 | 39.5 | 16.1 |
| 纖維 | 5,233 | 29.9 | 12,400 | 23.4 | 14.6 |
| 신발 | 874 | 5.0 | 2,240 | 4.2 | 15.9 |
| 化工品 | 780 | 4.5 | 1,440 | 2.7 | 15.9 |
| 鐵鋼 및 金屬 | 2,515 | 14.3 | 7,020 | 13.2 | 18.1 |
| 機械 | 3,451 | 19.7 | 17,260 | 32.6 | 31.5 |
| 一般機械 | 369 | 2.1 | 2,190 | 4.1 | 43.5 |
| 電子·電氣 | 1,928 | 11.0 | 6,900 | 13.0 | 25.3 |
| 輸送裝備 | 1,154 | 6.6 | 8,170 | 15.4 | 35.3 |
| 其他 | 833 | 4.8 | 3,450 | 6.5 | 23.9 |

로 개선해 나간다는 것이다.

輸出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이 경쟁력제고임을 감안, 經濟安定基調을 견지하여 物價 및 貨金安定을 유지함으로써 價格경쟁력을 확보하고 品質 등 非價格경쟁력의 向上에도 注力 生産性向上의 기본이 될 技術, 人力開發을 촉진하며 新製品開發과 品質高級化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節次의 簡素化, 合理化로 輸出支援制度의 효과를 높이고 量的擴大를 위한 직접지원에서 質的 向上을 위한 間接支援體制로 전환함으로써 長期的인 見地에서 輸出産業의 경쟁력강화에 이바지하며 경쟁력있는 品目에 대한 關稅率의 점진적인 引下, 關稅率構造의 合理化, 關稅還給業務의 簡素化를 기해 輸出에 따른 間接費를 節減해 나간다는 것이다.

地域特性에 맞는 通商活動을 전개하고 海外組織網을 擴大하며 民間通商外交活動도 擴大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輸出目標은 245 억弗에서 250 억弗사이로 설정했다. 이는 작년도의 209 억 9,300 만弗보다 16.7%에서 19% 정도 증가책정된 것인데 250 억弗 基準으로 봐서 農水鑛産物 16 억 6 천 만弗, 工産品 233 억 4 천 만弗을 목표로 하고 있

다.

工産品輸出目標은 重化學製品 119 억 8 천 만弗, 輕工業製品 113 억 6 천 만弗이고 重化學製品은 重工業 105 억 2 천 만弗, 化學製品 14 억 6 천 만弗이다.

정부는 올해 輸出目標달성을 위해 첫째, 內實 있는 輸出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高附加價值製品輸出增大, 商品 및 素材의 自給度向上, 國産原資材의 使用擴大, 利潤率의 提高, 輸出制限物量管理의 合理化, 赤字 輸出의 방지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둘째, 경쟁여건을 國際化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換率의 적정유동화로 實勢

82년도 輸出計劃

(單位: 억弗)

<表-3>

| | 81년 | 82년 | 增加率(%) |
|---------|-------|---------|-----------|
| 合計 | 210 | 245-250 | 16.7-19.0 |
| 農·水·鑛産物 | 14.9 | 16.6 | 11.4 |
| 工産品 | 195.1 | 233.4 | 19.6 |
| 重化學製品 | 95.1 | 119.8 | 26.0 |
| 重工業 | 81.6 | 105.2 | 28.9 |
| 化學 | 13.5 | 14.6 | 8.1 |
| 輕工業製品 | 100.0 | 113.6 | 13.6 |

重工業製品 輸出計劃

〈表-4〉 (單位：億弗)

| | 81 | 82 | 增加率 |
|----------------|------|---------|-----------|
| 總輸出 | 210 | 245-250 | 16.7-19.0 |
| 重工業製品 | 81.6 | 105.1 | 28.9 |
| 鐵鋼金屬 | 33.3 | 40.5 | 21.6 |
| 一般機械 | 6.6 | 9.0 | 36.4 |
| 電子電氣 | 25.4 | 32.0 | 26.0 |
| 輸送機械 (船舶포함) | 16.3 | 23.7 | 45.4 |

輕工業製品 輸出計劃

〈表-5〉 (單位：億弗)

| | 81 | 82 | 增加率 |
|-------|-------|---------|-----------|
| 總輸出 | 210 | 245-250 | 16.7-19.0 |
| 輕工業製品 | 100.0 | 113.6 | 13.6 |
| 織維 | 61.9 | 71.0 | 14.7 |
| 신발 | 10.5 | 12.0 | 14.3 |
| 타이어 | 4.4 | 4.5 | 2.3 |
| 合成樹脂 | 4.7 | 5.0 | 6.4 |
| 기타 | 18.5 | 21.1 | 14.1 |

를 反映시켜 나가고 輸出金融單價의 적정수준유지, 輸出金融金利의 主要競爭國水準유지 등으로 輸出支援金融制度를 補強해 나가며 輸出間接費의 절감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重工業製品輸出促進을 위해서는 輸出基盤擴充, 延拂輸出支援擴大, 輸出保險制度運營強化, 産業設備輸出促進, 海外建設用機資材輸出促進 등 시책을 펼쳐 나가며 輕工業製品輸出을 위해서는 施設能力的 擴大, 製品高級化 및 技術向上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部品輸出은 올해 20억弗의 수출목표를 세우고 國際系列化추진 등 어느때보다 의욕적으로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그늘진 貿易 환경

작년에 200억弗을 돌파, 209억 9,300만弗輸出을 기록함으로써 目標 205억弗를 2.4%나 초과 달성했던 우리의 輸出은 작년 9월 이후 계속된 L/C來到不振으로 올해들어 비틀거리고 있다.

경제의 체질을 건강하게 가꾸어 제 2의 도약기반을 닦기 위한 금년 경제 시책은 정부와 기업 그리고 근로자들의 성실하고도 합리적인 경제활동에 그 성패가 달려 있을 뿐 아니라 전체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야말로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본인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너 나 할것없이 국민 모두가 우리경제의 실상을 정확히 알고 노력을 해야만 그러한 협조와 참여는 더욱 빛나는 성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경제의 실상을 정확히 알면서 정책을 세우고, 기업을 하고, 공장을 돌리고, 수출을 증대시키고, 저축을 늘리는 일이야말로 경제를 더욱 튼튼한 기반위에 올려 놓아 줄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全斗煥 大統領 새해國政연설 (82. 1. 22)에서

特別企劃

현재 총 輸出에서 차지하는 년 L/C 베이스 輸出 比重이 11% 남짓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L/C가 많이 와야하는데, 이의 來到추세가 심하지 않다.

작년의 輸出高는 209억 9,300만弗였지만 L/C 來到額은 176억 8천만弗에 불과. 輸出實績을 밀돌았으며 더욱 불안한 것은 작년 하반기부터 내리막 길을 달리던 L/C來到不振이 올해 들어서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작년 4월에 전년동기보다 57.9%나急增했던 L/C來到額은 5월부터 그 增加率이 둔화하기 시작하여 9월부터 오히려 전년동기보다 下廻하기 시작. 9월 14.9%, 10월 5.9%, 11월 9% 마이너스였으며 12월에는 6.8%의 增加로 反轉하는가 하더니 올해 1월 들어서 또 8.1% 마이너스, 2월 8.7% 마이너스로 下向曲線을 달리고 있다.

輸出 역시 만족할만한 增加추세는 아니다. 지난 1월의 輸出은 14억 5,153만弗로 작년동기 대비 3.6%, 2월 15억 8,500만弗로 10.9% 증가에 불과. 작년 輸出實績對比 올해 輸出計劃 增加率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直視해야 할 점은 올해 輸出환경이 그다지 좋지가 않다는 점이다. 우선 올해 세계경제전망을 볼때 下半期이후는 완만한 回復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세계경제는 침체를 지속할 것이다.

美國은 상반기중 景氣沈滯持續으로 總體의인 면에서 올 한해동안 마이너스成長이 예상되고 日本은 비록 成長勢가 예측되나 기대할만한 것은 못되리라는 전망이다.

西獨, 英國, 프랑스 등 EC 國家들도 기대대로의 成長은 바라기 어렵다.

先進國들의 고용사정 역시 극도로 惡化돼 있으며 특히 유럽은 제 2차大戰以後 最惡의 失業事態에 직면해 있다.

이에 영향받아 世界貿易展望 역시 80년의 마이너스 伸張率에 비하면 多少의 回復이 기대되지만 輸入需要위축, 고용사정 惡化에 따른 保護貿易主義強化 등으로 OECD 전체로 볼때 약 3% 정도의 伸張率밖에 기대되지 못하고 있다.

最近의 輸出動向 (單位: 千弗)
<表-6>

| | 輸 出 | | L/C 來到 | |
|--------|-----------|-------|-----------|-------|
| | 金 額 | 增加率 | 金 額 | 增加率 |
| 81년 7월 | 1,926,257 | 129.9 | 1,335,201 | 109.2 |
| 8월 | 1,763,194 | 117.4 | 1,354,539 | 115.2 |
| 9월 | 1,854,327 | 119.3 | 1,200,403 | 85.1 |
| 10월 | 2,077,854 | 119.9 | 1,436,328 | 94.1 |
| 11월 | 1,559,960 | 103.3 | 1,297,836 | 91.0 |
| 12월 | 1,833,015 | 105.6 | 1,699,927 | 106.8 |
| 82년 1월 | 1,451,531 | 103.6 | 1,299,037 | 91.9 |
| 2월 | 1,585,000 | 110.9 | 1,399,000 | 91.3 |

註: 82년 2월은 추정치.

OPEC 國家들은 先進國의 石油輸入不振. 油價安定에 따른 交易條件惡化로 역시 輸入需要의 감소가 예상되며 非産油國들은 外換事情惡化로 輸入抑制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主要先進國의 고용사정 惡化에 따라 先發開途國에 대한 保護貿易主義強化는 EC의 경우. 對韓纖維輸入을 줄이겠다는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 多者間纖維協定(MFA III)이 올해부터 更新실시돼 쿼터의 年增加率이나 融通성에 대한 規制를 강화할 움직임이고 輸入急增防止制度. 規制基準삭감 등을 시도하고 있으며 많은 輸出 관심품목에 대한 소위 卒業概念을 도입, 輸入을 規制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19개 先進國으로부터 CCCN 4單位基準 纖維 등 148개 品目에 대해 輸入을 規制받고 있어 이의 規制 또한 강화가 예상되고 GSP의 수혜폭도 줄어들 전망이다.

여기에 우리는 또 物價 賃金 등 輸出 환경이 유리한 自由中國, 홍콩 등 경쟁국들과 싸워야 하고 中共의 진출은 우리와의 輸出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後發開途國들의 추격 역시 맹렬하다. 게다가 우리는 內的인 압박요인도 상당히 안고 있는 것이다.

戰略品目的 狀況

현재 우리 輸出業界가 보는 올해 輸出의 視覺도 밝지가 않다. 主要 輸出品目에 대한 올해 輸出 展望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신 발 國際間的 生産사이클移動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는 輸出競爭이 충분하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 이후의 L/C來到不振, 輸出 채산성악화로 輸出活動이不振하다. 이유는 美國의 高金利 歐州의 높은 失業率, 中南美地域의 경기부진, 外換不安, 日本通貨弱勢에 따른 需要不振, 美國의 쿼터制철폐이후 國內 中小企業의 과잉설비에 따른 國內業體間 과당경쟁, 內需市場침체에 따른 國內産業基盤惡化, 美國의 布靴類關稅率引上에 따른 輸入需要減少, 自由中國 등 主要경쟁국의 덤핑가열 등 때문이다.

따라서 輸出의 문제점은 품질경쟁력의 취약, 價格경쟁력의 열세, 덤핑으로 인한 채산성惡化, 事業內職業訓練義務過重 등이다.

合成樹脂 西歐의 사양산업화로 장기적 展望은 밝으나 短期的으로는 通貨時勢의 전망이 불투명하여 뚜렷한 伸張 기대는 어렵다.

原資材工業의 不實로 인한 價格競爭力 惡化로 채산성악화 내지 赤字輸出의 상태이다. 石油化學工業의 不振으로 主要경쟁국인 自由中國에 비해 價格경쟁력이 劣位이고 특히 스크렐利用 생산기술이 뒤떨어져 있다. 國內 業體間 과당경쟁, 美國輸出에 있어 공포대를 직물로 分類하여 섬유 쿼터제를 적용시키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이런 등의 特需不振과 국제경기회복지연으로 작년과 같은 水準의 수출이 예상된다.

電子 TV의 경우, 北美 歐洲지역의 滯貨累增, 高金利, 경기후퇴에 따른 受注의 少量 短期化추세이고 中南美지역은 外換不足, 政靜不安으로 기대를 못하여 장기적으로 봐서 需要는 무한정이나 올해 상반기까지는 원활한 수출을 기대할 수 없다.

V.T.R은 商品輸出展望은 밝으나 製品은 特許에 묶여 輸出이 不能狀態이고 오디오製品은 技術미숙으로 輸出에 急伸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通信機器는 컴퓨터용은 밝은 전망을 보이고 있으며 브라운관은 韓, 日, 自由中國間的 경쟁

과열로 價格이 下落되고 있다. 半導體는 전망이 매우 밝으며 콘덴서는 電子, 오디오의 경기부진과 국제경쟁가열로 부진할 것이다.

全體的으로 볼때 電子製品은 自體商標輸出이 성숙안돼있고 바이어의 스탁에 따라 需要가 결정됨으로써 不安定한 상태이며 國內部品工業이 제대로 育成안된 것이 문제들이다.

織維織物 綿絲의 경우, 原綿價格下落, 日本의 兪貨하락에 따른 구매력 감퇴로 상반기중에는 수출이 어려울 것이다.

하반기에는 다소 호전이 기대된다. 낮은 金利 國家인 파키스탄製品의 對日兪전스輸出이 큰 위협이고 美國은 高金利로 상반기 중 수출은 기대하기 어렵다.

絹織物 역시 兪貨價値가 회복될 하반기에나 기대되며 合成織物은 特需품의 감퇴로 역시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 업자간의 과당경쟁, 原資材의 로칼 價格이 높은 것이 문제이다.

合板 原木生産國의 資源내서널리즘으로 원자재확보가 어렵고 原木生産國의 合板業進出로 세계시장을 잠식하고 있으며 세계경기의 회복지연으로 전반적으로 올해 輸出은 불투명하다.

세계경기침체로 인한 稼動率저하, 赤字累增, 사양산업으로 본 金融機關의 貸하기피 등이 문제로 꼽힌다.

鐵鋼 전세계적인 鐵鋼供給의 과잉으로 國際價格이 下落하고 있으며 後進國이 市場을 잠식하고 있다. 또 세계경기 역시 침체에 빠져 있다. 美國의 相計關稅부과 움직임 國內業體間의 과당경쟁, 歐洲의 對東南亞덤핑, 로칼가격의 高價 등이 당면한 문제들이다.

洋食器 EC의 韓國産洋食器에 대한 GSP 혜택제지, EC에 대한 兪貨의 高評價, 中共의 物量공세, 國際價格下落 등으로 類例없는 不況에 직면하고 있다.

국내업체간의 과당경쟁, 가격경쟁력약화 등이 당면문제이다.

타이어 中東市場의 수요퇴조로 빈사상태이며 유럽, 日本産들이 15% 낮은 價格으로 침투해서 가격경쟁력이 약화돼 있다.

自動車産業의不振으로 海外市場쟁탈전이 치열하고 수출은 더욱 어렵다.

水産物 主市場인 日本에 대한 中共의 多量放賣와 恩貨弱勢로 인한 수입부담의 과중으로 구매력이 약화돼 있으나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에 國內水産物價格安定勢로 다소 수출도 호전될 전망이다.

선박노후화로 조업부진, 금융수혜기간이 짧은 것 등이 문제이다.

玩具 最大輸出國인 美國이 少額注文化 추세이고 유럽지역은 國內産業生産을 위해 輸入을 制限하고 있다. 봉제완구류의 국제경쟁력약화, 金屬 및 合成樹脂완구산업의 낙후, 디자인개발 및 품질관리人力不足 등이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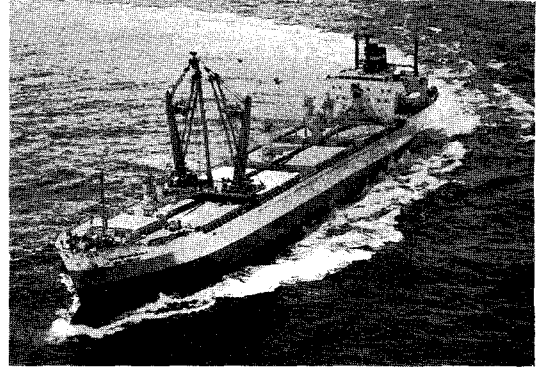
纖維製品 스웨터의 경우, 主要市場전반에 걸쳐 경기가 나쁘며 현재 稼動率도 전년에 비해 절반수준이고 例年の 경우에는 10-12 월 중에 長期오더를 확보했으나 지난 시즌에는 오더가 거의 없었다.

紳士服은 75%가 美國市場에 依存, 전년水準을 유지할것으로 예상되나 歐洲地域은 통화가치하락으로 고전이 예상된다.

셔츠는 美國市場은 좋으나 歐洲지역은 저조하고 재킷은 例年에 비해 注文이 약 2개월쯤 지연되고 있으며 바지類는 거의 오더가 없다. 깃털衣類는 작년까지 피크를 이루었으나 올들어서는 완전 침체상태이다. 종합적으로 볼때 最大市場인 美國의 高金利政策으로 需要自體가 격감한 실정이며 날씨마저 따뜻하여 판매가 不振하다. 輸出單價引下要求, 쿼터不足, 交易條件惡化, 人氣品目的 DA, DP 去來不許등이 문제점이다.

온 힘을 합해서

올해의 수출은 결코 낙관할 수 없다. 그렇진대 올 輸出目標을 달성하고 輸出主導에 의한 經濟成長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슬기와 집념이 모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장기적인 안목으로 量的인 輸出에서 質的인 輸出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바로 輸出구조의 高度化를 이루어야 한다. 生産性을 높이고 輸出商品을 高



級化해야 한다는 命題는 至上과제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國際경쟁력을 價格이 아닌데서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물론 輸出업체의 자율적인 노력이 앞서야겠지만 정부의 지원도 계속 돼야 한다. 生産性向上을 위한 정부의 가이드, 품질향상을 위한 정부의 유도, 技術開發을 위한 정부의 연구, 세일즈技法 개발을 위한 정부의 지원 등이 필요하다.

또 우리의 수출경쟁력이 質的경쟁으로 돌입할때까지 정부는 業계의 당면문제해결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金融面에서의 적절한 지원, 實勢를 반영해가는 환율의 효율적인 운영, 市場개척을 위한 稅制面의 지원 등에 있어 후퇴를 말아야 한다. 정부는 우리의 輸出에 항상 경쟁국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쯤이면 溫床밖의 발에다 이식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에는 다소의 신중이 필요하다.

그리고 輸出에 대한 熱意가 식지 말아야 한다. 특히 輸出업체가 그렇다. 이 정도만 輸出하면 먹고 살 수 있겠지 하는 안이한 자세를 떨쳐버리고 이 땅에서의 輸出意味를 되새겨 最善을 다해야 한다.

國民들도 輸出을 백안시해서는 안된다. 輸出業者들만 위한 시책이 어찌고 저찌고하는 말들은 버려야 한다. 이 땅의 사람들은 누가 뭐라든 輸出을 늘려가지 않으면 살수가 없다.

영하의 겨울에 따뜻한 안방도 輸出로 벌어들인 달러로서 기름을 사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